

배포 일시	2023. 1. 10 (화)		
담당 부서	해외건설정책과	책임자	과 장 안진애 (044-201-3516)
		담당자	사무관 이혜인 (044-201-3517)
해외건설 협회	글로벌사업지원실	책임자	실장 김태엽 (02-3406-1044)
		담당자	차장 김성진 (02-3406-1050)
보도일시	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

2022년도 해외건설 수주 310억불 달성, 3년 연속 300억불 넘겨 - 글로벌 경기 하강 국면에서도 우리 기업의 노력 빛나 -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와 해외건설협회(회장 박선호)는 코로나-19 장기화, 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, 글로벌 경제 위기 등의 악조건 속에서도 2022년 해외건설 수주가 3년 연속 300억불 이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.
- 2022년 우리기업 319개사는 97개국에 진출하여 총 580건의 사업을 수주하였고, 그 결과 전년 해외건설 수주 실적인 306억불을 상회하는 310억불 수주를 달성하였다.
- ('22년 수주 의의) 이는 코로나-19 발생 이후 침체된 경기, 전쟁으로 인한 건설자재 가격 인상,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고금리 현상 등이 지속된 가운데에서 일구어 낸 성과로, 어려운 상황에서도 진출 전략을 마련하여 활발한 수주활동을 한 우리 기업들의 적극성이 그 바탕이 되었다.
- 이에 대응하여, 국토부, 기재부, 산업부 등 관계부처도 각종 기업 지원방안과 진출 시 애로 개선방안을 총망라한 해외 인프라 수주 활성화 전략('22.8.31,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)을 발표함으로써 해외 건설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,

- 아세안·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(ASEAN, '22.11.11~13) 및 G20 정상회의 참석('22.11.15) 등 정상외교로도 해외 각국과의 협력을 견고히 하고, 국토부장관을 단장으로 한 사우디 원팀 코리아 출정('22.11.4~9) 등으로 기업들의 진출을 적극 지원했다.
- 또한, 범부처 민관합동 협의체인 해외건설 수주지원단 출범('22.12.28) 등 해외에 “원팀 코리아”로 진출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전방위적 수주지원 노력을 펼친 결과, 글로벌 경기 하강 국면에서도 수주동력을 유지해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.

< 참고 : 2015년 이후 해외건설 수주현황 >

구 분	'15	'16	'17	'18	'19	'20	'21	'22
수주액(억불)	461	282	290	321	223	351	306	310
수주건수(건)	697	607	624	661	667	564	499	58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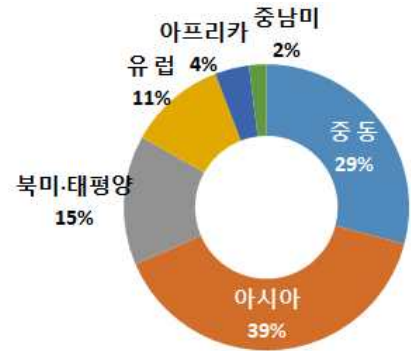
- ('22년 수주 분석) 2022년 해외건설 수주실적 분석은 다음과 같다.
 - (지역별 수주 분석) 지역별로는 아시아(39%), 중동(29%), 북미·태평양(15%), 유럽(11%) 순으로 아시아 지역 수주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중동은 작년 비중(37%)보다는 감소했지만 하반기 들어 산업설비를 중심으로 수주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.

* 중동지역 상반기 수주실적은 28억불(23%)이었으나 하반기에 62억불(33%)로 증가

- 북미·태평양 지역에서는 국내 제조업체가 발주한 대형 반도체 공장, 자동차 부품 생산 공장 등 45억불(15%)을 수주하며 비중을 확대했다.
- 또한, 아프리카 지역은 4%로 전체에서의 비중은 미미하지만, 나이지리아 산업설비 보수공사, EDCF 및 ODA 재원 공사 등 12억불을 수주하며 전년대비 크게 증가하여 '20년 수준(11억불)으로 회복하였다.

< 참고 : 2022년 지역별 수주현황 >

구 분	2022		2021		전년 대비 증감률(%)
	수주액 (백만불)	비중 (%)	수주액 (백만불)	비중 (%)	
아시아	12,205	39.4	9,253	30.3	31.9
중 동	9,021	29.1	11,220	36.7	-19.6
북미·태평양	4,536	14.6	3,934	12.9	15.3
유 럽	3,411	11.0	4,596	15.0	-25.8
아프리카	1,204	3.9	199	0.7	503.7
중남미	604	2.0	1,379	4.5	-56.2
합 계	30,981	100	30,580	100	1.3



○ (국가별 수주 분석) 2022년에는 인도네시아, 사우디 아라비아, 미국 순으로 다수 진출*하여, 기존에 우리나라가 주로 진출하던 국가들**에 비해 다소 달라진 양상을 보였다.

* '22 순위 : 1위 인도네시아(36.7억불), 2위 사우디아라비아(34.8억불), 3위 미국(34.6억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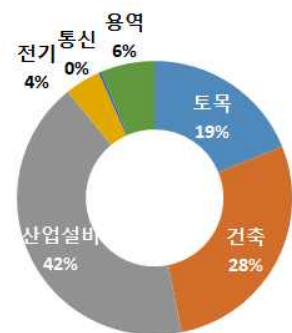
** 누적순위 : 1위 사우디아라비아(1,561억불), 2위 UAE(832억불), 3위 쿠웨이트(489억불)

○ (공종별 수주 분석) 공종별로는 산업설비(플랜트)가 예년과 마찬가지로 높은 비중(42%)을 차지했으며, 이어 건축(28%), 토목(19%), 용역(6%) 등의 순으로 수주했다.

- 산업설비 수주액은 중동 지역의 일시적인 발주량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약 20% 줄었으며, 건축 수주액은 국내 제조기업이 발주한 해외 공장 건설공사에 힘입어 전년대비 약 2배로 증가했다.

< 참고 : 2022년 공종별 수주현황 >

구 분	2022		2021		전년 대비 증감률(%)
	수주액 (백만불)	비중 (%)	수주액 (백만불)	비중 (%)	
산업설비	13,100	42.3	16,399	53.6	-20.1
건축	8,659	27.9	4,096	13.4	111.4
토목	5,852	18.9	5,859	19.2	-0.1
용역	1,972	6.4	1,109	3.6	77.8
전기	1,296	4.2	3,089	10.1	-58.0
통신	103	0.3	29	0.1	255.5
합 계	30,981	100	30,580	100	1.3



□ ('22년 수주 평가) 2022년 해외건설 수주 특징은 다음과 같다.

- 먼저, 산업설비의 기본설계와 상세설계를 연결하는 작업인 FEED(Front End Engineering Design)를 수행한 기업이 플랜트 구조와 운영에 대해서도 이해를 높여 플랜트 시공 본사업을 수주하는 “FEED to EPC*” 사례가 있다.

* EPC(Engineering, Procurement, Construction)는 설계, 조달, 시공 일괄 수행

- 최근 몇 년 간 말레이시아 사라왁 쉘 사업 등 '19년~'20년에 수주한 FEED가 몇 년 후 본공사 수주로 이어지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어, 우리 기업들이 호주, 미국, 말레이시아 등에서 FEED를 수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도 본공사 EPC 수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.

- 다음으로, 자동차 및 부품 생산, 반도체 제조, 원자재 가공 등 국내 제조업체가 해외 생산설비 투자를 확대할 때, 그룹사 중 건설업 계열사가 이를 시공하는 사례*도 증가했다.

* 인도네시아 롯데케미칼(24.4억불), 미국 삼성전자(19.1억불), 아르헨티나 포스코(2.7억불) 등

- 또한, 무상으로 개발도상국의 기반시설이나 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공적개발원조(ODA)로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, 우리나라가 차관(대외 경제협력기금, EDCF)을 지원하여 우리 기업이 본 사업을 수주하는 금융 연계사례도 '22년 수주 성과 중 하나였다.

* 케냐 나이로비 지능형교통망(ITS)구축 및 교차로 개선사업 등

- 또한, '20년도 코로나-19 유행 시작과 함께 줄어들었던 중소기업 수주금액*도 그 전 수준으로 반등하여, 중소·중견기업 진출 확대 측면에서도 의미를 보였다.

* 16.7억불('19년) → 12.0억불('20년) → 12.9억불('21년) → 16.0억불('22년)

- 해외건설협회 박선호 회장은 “코로나-19 위기와 국제적인 전쟁 상황에도 불구하고 민·관의 적극적인 수주활동과 고위급 협력 3년 연속 해외건설 수주 300억불을 초과 달성할 수 있었다” 고 감사를 표했다.
- 또한,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“어려운 대내외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2022년에도 310억불이라는 성과를 낸 것은 우리 기업인들이 먼 타국에서 열심히 노력한 덕분이라고 생각한다” 며,
- “앞으로 범정부 차원의 수주 외교, 적극적인 금융 지원과 정보 제공 등으로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여, 2027년 해외건설 수주 연 500억불 달성, 세계 4대 건설강국 진입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” 는 포부를 밝혔다.

담당 부서	해외건설정책과	책임자	과 장	안진애 (044-201-3516)
		담당자	사무관	이혜인 (044-201-3517)
해외건설 협회	글로벌사업지원실	책임자	실장	김태엽 (02-3406-1044)
		담당자	차장	김성진 (02-3406-1050)